

Since Oct. 10, 2004

해외 한인 장로회

Church of the Lord

하나님의

사랑교회

Oct. 04, 2026

(통권 1126호)



오늘의 말씀

“쉬”

지쳤지만 무너지지 않는 삶

[마 11:28~30]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를 얻으리니 (30)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담임목사 정 석 진

David Seokjin Chung / Senior Pastor

Cell 551.999.5358

pastor.ds.chung@gmail.com

5 Old Dock Rd.

Alpine, NJ 07620

Tel. 845.398.0691, 201.767.1004

Fax. 845.398.1365

www.churchofthelord.org

서론 ~ 우리는 왜 쉬어도 피곤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은혜로 피어나는 삶」의 첫 번째 꽃, “풍성함”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요 10:10]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풍성한 삶은 더 많이 소유하는 삶이 아니라 목자를 만난 삶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받은 생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 때, 우리는 진정한 ‘쉼’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두 번째 꽃, “쉼”에 대해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전 세대보다 훨씬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고, 세탁기가 있고, 인터넷이 있고, 스마트폰 하나로 수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보다 육체적으로 힘을 덜 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더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휴가를 다녀와도 피곤합니다. 주말에 쉬어도 월요일이 두렵습니다. 몸은 소파에 누워 있는데 머릿속에서는 내일 해야 할 일이 계속 돌아갑니다. 몸은 멈추었는데 마음은 멈추지 못합니다. 우리의 진짜 피곤함은 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지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좀 쉬어라.” “일을 좀 줄여라.” “조금 더 강해져라.”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쉼은 내가 만들어내는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본문 강해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몸보다 영혼이 더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피곤함을 아십니다.

[마 11: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는 우리의 상태를 표현하는 두 가지 말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수고하는 자들[κοπιῶντες(코피온테스)]”입니다. 이 단어는 동사 [κοπιᾶω(코피아오)]에서 온 말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일한다”는 뜻보다 강합니다. “애쓰다, 힘을 다하다, 지칠 때까지 수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너무 오래 애쓴 사람들입니다. 가정을 위해 애썼습니다. 자녀를 위해 애썼습니다. 생활을 위해 애썼습니다. 교회를 위해 애썼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심지어 좋은 크리스천이 되려고도 애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영혼이 말합니다. “이제 힘들다; 이제 지친다.”

두 번째는 “무거운 짐 진 자들[πεφορτισμένοι(페포르티스메노이)]”입니다. 이 단어의 루트는 동사 [φορτίζω(포르티조)]입니다. “짐을 지우다, 무거운 것을 엮다”를 뜻합니다. 이 두 단어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κοπιᾶω는 내가 애쓰다가 지친 모습이라면, φορτίζω는 무엇인가가 내 위에 얹혀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피곤함은 내가 뭔가를 너무 많이 해서 옵니다. 그러나 어떤 피곤함은 내가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옵니다. 책임의 짐이 있습니다. 염려의 짐이 있습니다. 과거의 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라는 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도 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보다 더 잘해야 하는데…” “나는 더 기도해야 하는데…” “나는 왜 저 사람만큼 믿음이 없을까?” 은혜로 시작한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 자기 증명의 짐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완전히 지쳐버린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야입니다. 갈멜산에서 엄청난 영적 승리를 경험한 바로 그 엘리야가 얼마 지나지 않아 광야에 주저앉습니다.

[왕상 19:4]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렘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아닙니다.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도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친 엘리야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다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가 부족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어 그를 만지시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먹으라(왕상 19:5).” 그리고 재우십니다. 먹이십니다. 다시 재우십니다. 다시 먹이십니다. 이 장면이 참 따뜻합니다. 저는 제 사역에서 피곤함을 느낄 때 때로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던 날이 많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지침도 아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쳤다는 것은 반드시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충성했기 때문에, 또는 오랫동안 책임을 감당했기 때문에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지친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의 첫번째 초청은 “더 하라”가 아니라, “내게 오라”입니다. 28절의 가장 중요한 명령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δεῦτε πρὸς με(듀테 프로스 메/Come to Me)]”입니다. 예수님은 “쉬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정확히 연결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풍성함을 찾아 계속 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Jesus + Something이 풍성함의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다.” 그리고 오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풍성함의 시작도 예수님 자신이셨고, 쉬의 시작도 예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자주 생각합니다. “이 문제만 끝나면, 이 일만 해결되면, 자녀 문제만 해결되면, 건강만 회복되면 설 텐데...” 그런데 한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따라서 우리의 쉬이 환경이 정리되는 것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평생 제대로 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먼저 환경을 바꾸겠다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내게로 오라” 하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눅 10:40]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 주라 하소서 마르다가 섬겼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섬김이 그녀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마르다는 예수님께 불평합니다.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눅 10:41~42] …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일하면서도(Doing for Jesus) 주님 앞에 앉는 것(Being with Jesus)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섬은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것보다 먼저 주님과 함께 있는 데서 시작됩니다. 섬은 멍에가 없는 삶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삶입니다.

29절에서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 11: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28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바로 다음 절에서, “나의 멍에를 메라” 하십니다. 우리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라. 이제 아무것도 메지 마라”는 말씀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나의 멍에를 메라” 하십니다.

멍에는 헬라어로 [ζυγός(쥐고스)], 영어로 yoke입니다. 짐승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일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무책임한 삶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네가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고, 혼자 모든 것을 통제하고, 혼자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 멍에를 내려놓고 이제 나의 멍에를 메어라” 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쉼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배우라.” 쉼은 단순히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삶,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하는 삶에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내가 내일을 책임져야 하는 삶에서 오늘의 은혜를 받는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시 55:22]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베드로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벧전 5:7]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복음은 “짐이 없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너를 돌보시는 분이 계신다”입니다. 지난주의 고백과 다시 만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은 내일 먹을 풀까지 등에 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0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마 11:30]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삶에는 더 이상 짐이 없을 것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짐은 가볍다”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짐의 무게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지는 관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쉬운 짐 하나도 없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짐을 지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쉬운 환경의 쉽다 “영혼의 쉽”입니다. 이제 29절 마지막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여기서 개역개정이 “마음”이라고 번역한 말은 헬라어 [ψυχή(프쉬케)]입니다. 본문에서는 복수형 [ψυχαῖς(프쉬카이스)]가 사용됩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의 psyche, 그리고 psychology 같은 단어가 나왔습니다. [ψυχή(프쉬케)]는 영혼, 생명, 내면의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단순히, “네 일정이 한가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영혼이 쉬을 얻으리라.”

이것은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바쁜데도 영혼은 쉴 수 있습니다. 문제가 남아 있는데도 영혼은 쉴 수 있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해도 영혼은 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쉬의 근거가 환경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갑니다.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물이 배에 들어옵니다. 제자들은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막 4:38]” 폭풍이 끝난 다음에 주무신 것이 아니라, 폭풍 한가운데서 주무셨습니다. 환경은 평안하지 않았지만 예수님 안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막 4:39].” 그리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다가 잔잔해지기 전에도 예수님은 이미 평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주 내 바다가 먼저 잔잔해져야 내가 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은 다릅니다. 폭풍이 멈춘 뒤에만 얻는 쉼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누리는 쉼입니다.

맺는 말 ~ 모든 일이 끝나야 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렇게 말합니까? “이것만 끝나면 쉴 거야.” 그런데 그것이 끝나면 또 다른 일이 시작됩니다. 자녀를 다 키우면 쉴 줄 알았습니다. 은퇴하면 쉴 줄 알았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좀처럼 우리에게 “이제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 모든 일이 끝나야 쉴 수 있다면, 우리는 평생 쉬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전혀 다른 쉼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네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내게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짐을 다 정리하고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강해진 다음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왔다.” 오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분에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가면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웁니다. 혼자 짊어지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아도 되는 법을 배웁니다. 내일의 짐을 오늘 미리 지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주님께 맡기는 법을 배웁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쉬운 삶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더 이상 혼자 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포인트

주님,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과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환경이 모두 해결되어야만 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늘의 짐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바쁜 삶 가운데서도 내 영혼이 예수님 안에 깊이 머물러,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된 쉼을 누리게 하옵소서.